

〈鶯鳩鶯訟臥渴先生傳〉의 풍자양상과 작가의식*

장예준**

〈차 례〉

1. 머리말
2. 『청성잡기(靑城雜記)』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의 풍자 양상과 의미
3. <앵구목송와갈선생전>의 대립구도와 풍자 양상
4. <앵구목송와갈선생전> 작자의 시각과 현실 인식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청성잡기』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에 나타난 풍자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앵구목송와갈선생전>에 와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이 새롭게 드러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청성잡기』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는 '부정한 뇌물 수수를 통한 부당한 판결'을 비판하는 데 작품의 초점이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작중 인물 모두를 풍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앵구목송와갈선생전> 역시 기본적인 구도는 『청성잡기』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와 같다. 그렇지만 여기에 '문벌 자랑' 이야기를 더 첨가하여 각 등장 인물들을 당대 중인층을 포함한, 지배계급을 대표하는 인물로 변형시켰고, 이들이 보여주는 허장성세와 '동질감'을 바탕으로 한 결탁 등을 통해 당대 지배 계급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함을 꼬집었다.

* 본 논문은 2006년 11월 고려대 고전문학한문학회 제190차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2007년 5월 제58차 한국고전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발표 때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순천대 이상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백석대 강사.

이 작품에서 작자는 물질적 이해다툼만으로 가득 찬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를 당대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정신적 가치는 퇴색한 채 노골적 편들기와 물질적 이해다툼만이 남아 있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채, 방향적 지표를 잃어버린 작자의 절망감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욕망과 이해가 철저하게 대립하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주제어 <앵구목송와갈선생전(鶯鳩鶯訟臥渴先生傳)>, 『청성잡기(靑城雜記)』, <황새결송>, 우언, 우화, 풍자, 동질성, 뇌물

1. 머리말

<앵구목송와갈선생전(鶯鳩鶯訟臥渴先生傳)>은 ‘피꼬리와 비둘기, 따오기가 서로 자신의 세덕(世德)과 문벌(門閥), 목청을 자랑하다 우열을 결정짓지 못하자 마침내 와갈선생(臥渴先生)에게 송사(訟事)를 제기하여 결정’한다는 작품이다.¹⁾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중심 모티프로 들어가 있는 <황새결송>은 작품 내 ‘송사’ 사건이 갖는 의미 때문에 일찍부터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반면 <앵구목송와갈선생전>은 이전 시기부터 전해 내려오던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에서 ‘문벌 자랑’을 첨가해 넣고,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 자체에도 변형과 확장을 가함으로써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 <황새결송>과는 변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윤승준²⁾이 동물우언(動物寓言)과 동물우화소설의 교섭 양상을 논의하면서,

1) 윤승준, 『동물우언(動物寓言)의 전통(傳統)과 우화소설(寓話小說)』 (월인, 1999), 199면.

2) 윤승준, 앞의 책, 198~206면.

정출현³⁾이 <따오기 노래자랑>의 전승 양상과 풍자성을 논의하면서 다른 작품과 함께 다루었을 뿐, 본격적인 작품론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이 작품의 풍자성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송사’ 구조에만 주목한 나머지, 작품 내에서 이루어지는 풍자의 다양한 양상들과 의미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우선 『청성잡기(靑城雜記)』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에 나타난 풍자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앵구목송와갈선생전>에 와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이 새롭게 드러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2. 『청성잡기(靑城雜記)』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의 풍자 양상과 의미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어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근거 중의 하나로 보통, 이야기꾼 김옹(金翁)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시를 든다.⁴⁾ 이를 통해 김옹(金翁)의 레퍼토리에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도 끼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목소리가 가장 나쁜 따오기가 황새에게 뇌물을 주어 피꼬리와 비둘기를 이긴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나이 자랑 모티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⁵⁾으로

3) 정출현, 『조선 후기 우화소설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151~157면.

4) ‘知慧珠圓比詰中 / 禦眠楯是滑稽雄 / 山鶯野鶯紛相訟 / 老鸛官司判至公.’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중) (일조각, 1978), 456면). ‘정출현, 앞의 책, 151면’에서 재인용.

5) 소인호, 「두껍전 이본군(異本群)의 양상과 사회적 의미」,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1), 56면.

한편 윤승준은 ‘쟁년형(爭年型)’이라는 용어 대신, ‘쟁장형(爭長型)’이라는 용어를 사

간주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송사형 우화소설 <황새결승>에서 액자형태로 들어가 작품 전체의 핵심모티프로 기능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이 이야기의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의 『청성잡기(靑城雜記)』 성언편(醒言篇)에 실려 있는 것을 든다. 여기서는 따오기 대신 무수리가 들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같다. 아울러 이 우화 내용은 <앵구목송와갈선생전>에서도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화 내용이 각 작품 속에 들어가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면서 풍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강도나 지향점은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우화 내용이 무수리(따오기)를 풍자 대상으로 삼고, 부당한 송사 사건이 작품 전체에서 강력한 풍자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작품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무수리’를 지목하여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⁶⁾ 본고의 논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그 풍자 양상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기에 본고

용하고 있다. 그는 이 ‘쟁쟁형’이라는 용어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어른을 다룬다는 뜻’의 술어로, 그 다툼의 성격이 ‘나이 자랑’이건, ‘목청 자랑’이건, ‘문벌’이나 ‘공적’ 또는 ‘식견 자랑’이건, 아니면 ‘상좌(上座) 다툼’이건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승준, 앞의 책, 173면 및 같은 면 각주 3)). 그런데 그는 <앵구목송와갈선생전>의 주요 모티프를 송사로 보고, 이 작품을 송사형 우언에 넣어서 다루고 있다. 기실 『청성잡기(靑城雜記)』 <따오기 목청 자랑> 이야기와 <황새결승>은 분명히 목소리 다툼을 통한 ‘송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앵구목송와갈선생전>에서는 ‘목청 다툼’이 ‘문벌 자랑’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작품 내에서 ‘문벌 자랑’과 ‘목청 다툼’이 뒤에 이어지는 ‘송사’와 비슷한 비중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 작품은 ‘쟁쟁형과 송사형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들이 별이는 ‘문벌 자랑’과 ‘목청 다툼’의 양상 자체에 더 주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6) 정출현, 앞의 책, 152~153면.

에서 그 풍자 양상을 인물 형상화와 관련지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앵구목송와갈선생전>에서의 변화를 살펴겠다.

1) 꾀꼬리와 비둘기에 대한 풍자: 준비성 없는 인물에 대한 비판

꾀꼬리, 비둘기가 무수리와 소리를 가지고 우열을 다투다가 어르신께 가서 견주기로 하였다. 그들 모두 말하기를,

“황새라면 괜찮겠다.”

라 하였다.

(그런데) 꾀꼬리는 자신의 소리가 아름다움만 믿어 그윽한 곳에서 쉬면서 비웃었고, 비둘기 역시 의심 없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여 느릿느릿 걸어 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무수리는 자신이 저 두 짐승만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몰래 뱀 한 마리를 쫓아 잡아서 먼저 황새를 찾아가서 드리고, 또 자신의 사정(私情)을 고하였다. 황새는 마침 굶주리고 있던 터라 한 입에 다 먹어치우고는 기뻐하며 말했다.

“함께 오기만 해라.”

(세 짐승이 황새 앞에) 이르러서는 꾀꼬리가 먼저 한 번 지저귀자 황새가 부리를 안으로 향하며 조그맣게 읊조리며 말했다.

“칭아하기는 칭아하지만 애처로움에 가깝네.”

비둘기가 이어서 울자 황새는 목을 낮추고 천천히 웃으면서 말했다.

“그윽하기는 그윽하나 음란함에 가깝네.”

마지막으로 무수리가 목을 늘이고서 부르짖자 황새는 꿩무니를 쳐들고서 빠르게 노래 부르며 말했다.

“탁하기는 탁하나 웅장함에 가깝도다.”

(이는) 고과(考課)법에서 꼴지[末優]를 한 자가 승리한 것이다.

이에 무수리는 스스로 승리했다고 여기고는 높은 곳에 올라가⁷⁾ 부리를

7) 원문의 ‘升’은 ‘昇’의 오자임.

흔들어대며 노래를 불러대며 그칠 줄을 몰랐다. 그리고 황새 역시 교만하게 걸으며 먼 곳을 훑듯 보며 스스로 만족한 기색을 띠었다.

피꼬리와 비둘기는 부끄러움에 말문이 막힌 채 달아나 버렸다.

-인물을 알아보는 감식안이 없는 고시관이 이 한 단락의 글을 읽고는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⁸⁾

『청성잡기(靑城雜記)』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 전문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피꼬리와 비둘기, 무수리 간의 목청 다툼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대신 이들이 황새에게 가서 노래를 부르고 판결을 받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관심의 초점은 판결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에 있게 된다.

자신의 목청 좋음을 다투던 이들은 ‘어르신’께 나아가서 판결을 받기로 한다. 그들은 모두 “황새라면 괜찮겠다.”라고 입을 모은다. 곧 이는 황새라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신뢰감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기에 판결 장면에서 황새가 보여주는 행동은 그야말로 아이러니하고 강한 풍자성을 띠게 된다.

작자는 본격적인 송사를 벌이기 전에 피꼬리와 비둘기에 대한 풍자를 드러낸다. 피꼬리 소리가 곱고, 비둘기 역시 여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에 이들은 자신의 능력만 철석같이 믿은 채 송사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는다. 작자는 이들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8) 鶯鳩與鶯，以音爭勝，議就長者而考。咸曰，“鶴也可然，”鶯恃其音之妙也，幽憇而笑，鳩亦不以爲意，慢行而謠。鶯則自知不若二禽，乃潛啄一蛇，先造鶴而餌之，且告之私。鶴適飢，一吸而盡，喜曰，“茅與俱來。”至則鶯先囀一聲，鶴內喙微吟曰，“清則清矣，近於哀。”鳩繼之鳴，鶴低吭徐嘻曰，“幽則幽矣，近於淫。”最後鶯伸頸而叫，鶴舉尻疾唱曰，“濁則濁矣，近於雄。”考課之法，末優者勝。於是，鶯者以爲勝，升高四顧，振囑而號，不知止也。鶴亦矯趾遠睇，有自得色。鶯鳩慚沮而遁。-沒藻鑑底主司，讀此一段，能不駢顏- (성대중(成大中), 『청성잡기(靑城雜記)』 권1, 성언편(醒言篇), 48면).

그리고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작자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이는 황새의 판결이 끝난 다음에 확연하게 드러난다.

황새가 이들의 소리에 대해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서 무수리와 함께 희희낙락하자 꾀꼬리와 비둘기는 ‘부끄러움에 말문이 막힌 채 달아나’ 버렸다.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도망친 것은 이 판결을 통해 능력만 믿고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던 자신들의 잘못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앞에서 이들이 그윽한 곳에서 쉬면서 비웃고, 느릿느릿 걸어 다니며 노래를 부르던 모습과 대비됨으로써 강하게 부각된다.

결국 작자는 송사가 시작되기 전 자신의 능력만 믿고서 자만에 빠진 꾀꼬리와 비둘기의 모습과 송사에서 패배하여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도망치기에 바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자만하여 준비를 소홀히 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내었다.

2) 무수리와 황새에 대한 풍자: 부정을 통한 사회정의의 파괴

이제 무수리와 황새로 시선을 돌려보자. 무수리와 황새에 대한 풍자적 의미는 이미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곧 뇌물 제공을 통해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정의를 흐리는 사람과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판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무수리에 대한 작자의 시선은 양면적이다. 곧 작자는 무수리가 자신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나름의 준비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다. 이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판결에서 지고 만 꾀꼬리와 비둘기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더욱 강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뇌물 제공’이라는 부정적 수단이 동

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한다. 무수리가 송사에서 승리한 뒤 마치 ‘자신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 양 부리를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 속에는 작자의 이러한 비판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자는 무수리보다도 오히려 황새에게 더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곧 작자는 판결 전후에 보이는 황새의 행태를 간결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그림으로써 판관 황새에 대한 풍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이 작품에서 판결을 받으러 온 피꼬리, 비둘기, 무수리의 울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대비시킨다. 즉 피꼬리는 ‘지저귀(囀)’였고, 비둘기는 ‘울(鳴)’였으며, 무수리는 ‘부르짖(吽)’었다고 했다. ‘지저귀’, ‘울’, ‘부르짖음’, 이 세 단어는 이들의 울음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술한 것으로, 이들의 능력을 명확하게 대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 사용을 통해 후자로 갈수록 소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황새의 반응은 정말 가관이다. 황새는 피꼬리의 소리에 대해 ‘부리를 안으로 향한 채 웅얼거리면서’ 말을 하고, 비둘기의 소리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웃으면서’ 말을 한다. 그리고 무수리의 소리를 듣고는 ‘짱무니를 쳐들고서 빠르게 노래 부르며’ 말을 한다. 이는 정말 실력 있는 피꼬리 소리에는 미동도 하지 않다가 보잘 것 없는 무수리 소리를 듣고는 감정이 고양되어 너스레를 떨어대는 황새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 서술이 강한 풍자성을 띠게 되는 것은 앞의 새 소리 능력이 하강한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이를 평가하는 황새의 모습이 점점 과장되어 간다는 점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작자는 새들의 울음소리와 이에 대한 황새의 반응을 묘하게 대비시켜 피꼬리, 비둘기, 무수리 모두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 주리라 기대해

마지않았던 ‘황새’가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폭로함으로써 너물을 미끼로 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판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었다고 하겠다.

이 작품에서는 ‘풍자’의 시선이 모든 등장인물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황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앵구목송와갈선생전>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지만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드러내는 의미는 큰 차이를 보인다.

3. <앵구목송와갈선생전>의 대립구도와 풍자 양상

1) 문벌 자랑: 분수를 망각한 허장성세

피꼬리[鵞兒]는 그 동안 비둘기[鳩氏]와 교유가 없었음을 생각하고, 비둘기에게 편지를 보내어 모임을 갖는다. 이때 따오기가 멀리서 바라보다 다가와서 모임에 참여한다. 둘의 모임에 합류하면서 따오기는 이들의 모임이 참으로 아름답다며 칭찬한다.⁹⁾ 이 말에 피꼬리는 기고만장해져서 각자 문벌 자랑을 하자고 제안한다.¹⁰⁾ 그러고는 자신이 제일 먼저 자신의 문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가) 우리 선조는 성(姓)이 황(黃)이요, 휘(諱)는 창경(倉庚)이러오. 주(周)나라 태사(太史)께서 칩을 모으실 적에 떨기나무에 모여 앉아 삼베옷 짓는 일을 도왔고, 조후(條侯: 주아부(周亞夫))께서 출정하던 날에 세류영

9) “二子之會, 可謂江山勝遊. 語曰, ‘三人行, 必有我師’, 固未知誰爲弟子也.” (국립중앙도서관본 <鵞鳩驚訟臥渴先生傳>, 2면). 이후 인용에서는 작품 면수만 밝히겠다.

10) 鵞兒嬌而欲醉曰, “今日之會, 不可落莫, 請各言世德門地, 以較優劣, 亦一勝事, 抑未知二子之意如何.” (2~3면).

(細柳營)에 따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을 세우는 데 일조하였다오. 그래서 양주군(楊州君)에 봉해졌으며, 궐덕(厥德)이 금삼품(金三品)에 이르렀오. 중기이후로는 비록 세상에 드날릴 만한 공업은 없었지만, 가정(家聲)을 끊지는 않았소이다. 난 다행히 선조께서 하시던 방직 일을 이어받아 버드나 무실[柳絲]을 내어 동황(東皇)의 곤룡포를 수놓았다오. 그래서 애초에 금의 공자(錦衣公子)에다 황면장군(黃面將軍)을 더하여 봉해져서 황금박대(黃金博帶)를 차고서 장대(章臺)와 위성(渭城) 사이를 내달리니 객사(客舍)는 푸릇푸릇하고, 유막(柳幕)은 파릇파릇(綠綠)하였소. 이 때 우림(羽林)으로 길에 나와 생활을 불고 소리치며 길을 정리하였으니, 우리 집안의 세덕문벌(世德門閥)이 과연 어떠하오?”¹¹⁾

(나) 우리 선조들께서는 소호씨(少昊氏)께서 새 이름으로 관직을 정하실 적에 축구씨(祝鳩氏)는 대사구(大司徒)가 되었고, 명구(鳴鳩)는 대사마(大司馬)가 되었으며, 유구씨(類鳩氏)는 대사공(大司空)이 되었으니, 이 분들은 모두 오륙 대(代) 선조 분들이라오. 제(齊) 위공(威公) 시절에는 상구(爽鳩)의 패업(伯業)을 세웠으며, 한(漢) 고조(高祖) 시절에는 고정(枯井)의 무공(武功)을 이루어냈다오. 대대로 우리 비둘기들은 널리 의견을 모아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공적을 드러내어[方鳩僉功] 큰 도시를 이루어 내었다오. 그래서 뽕나무가 팔백 그루인데, 뽕꾸기가 뽕나무에 앉으니 그 새끼는 일곱 마리나 되었고, 까치가 등지를 틀자 비둘기가 자리를 차지하였다오. 우리 선조께서 남기신 자손들과 자손을 위한 계책이 어떠하뇨? 그대 집안의 세덕(世德)이 높다면 높고, 문벌(門閥)이 화려하면 화려하다 하겠거니와 황반(黃班)에 불과할 뿐이니, 청족(靑族) 앞에서 어찌 그리 말이 많은고?”¹²⁾

11) “吾先祖姓黃，諱倉庚。當周妣采葛之時，集于灌木之上，而助其締紘之綾，迨條候出陣之日，隨于細柳之營，而佐其介冑之功，故因以封楊州君，厥德惟金三品。中葉以來，雖無赫世之功業，只不絕家聲矣。我幸繼先做織，出柳絲以補東皇之袞，則初以錦衣公子，加封黃面將軍，黃金博帶，騁于章臺渭城之間，客舍青青，柳幕綠綠，時出自羽林道上，吹笙鳴蹕，其爲世德門地，果如何哉？”(3면).

12) “惟我先祖，當少昊以鳥紀官之時，祝鳩氏爲大司徒，鳴鳩爲大司馬，類鳩氏爲大

(다) 필경 그대들은 이 어르신(의)의 세덕(世德)을 듣고 싶은가? 내 우선 조금 펴보리다. 우리 선조께서는 ‘청백(淸白)’함을 집안에 내려 주셨으니, 하얀 깃털처럼 하얀 옷을 해 입었고, 흰 눈처럼 깨끗한 마음을 먹었다네. 그래서 조정의 벼슬아치 반열에 오르는 것을 사양하고, 갈대를 물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 같은 삶을 배워 저 높이 나는 새들의 극진함을 이루고, 세상사 잊은 한가로운 갈매기를 짝하여 스스로 강호에 은거한 사람(江湖逸民)이라 하였다네. 그렇지만 오히려 삼가고 경계하는 선비가 되어 제비와 메추라기의 자잘한 뜻을 버리고 기러기와 고니의 고상한 행동을 사모하여 날개를 펴 덕거리며 높이 날아가려 하였으니, 이른바 ‘고니를 새기다가 안 되더라도 집 오리와 비슷하게 된다.’는 거라네. (그러니 내가 어찌) 기꺼이 너희들과 비둘기의 공업(功業)을 다투고, 찌꼬리의 부귀를 사모하겠는가?¹³⁾

인용문 (가)는 찌꼬리가, (나)는 비둘기가, (다)는 따오기가 문벌 자랑을 늘어놓는 대목이다. 이들은 서로 자신의 문벌 자랑을 통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있으며, 신분적 우월감을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고를 통해 나타난 이들의 출신 성분이다.

인용문에 나타난 찌꼬리와 비둘기, 따오기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출신을 살펴보자.

우선 찌꼬리는 주아부(周亞夫)가 출정하던 날에 자신의 조상이 세류영

司空, 皆五·六代先祖也. 在齊威公時, 樹爽鳩之伯業, 在漢高之時, 聚枯井之戎功, 世世以來, 方鳩僞功, 故成都, 有桑八百株, 而鳩鳩在桑, 其子七兮, 維鷺有巢, 維鳩盈之, 而我先祖遺肆燕謨, 爲如何哉? 爾之世德, 高則高矣, 門閥, 華則華矣, 不過爲黃班也. 靑族之前, 烏得多言?” (3~4면).

13) “竟欲聞長者世德乎? 我且少陳. 惟我先祖, 淸白傳家, 衣以白羽之白, 心以白雪之白, 謝其鷺鷺之班, 而學冥鴻之含蘆, 成其高鳥之盡, 而伴間鷗之忘機, 自稱江湖逸民, 猶爲謹勅之士, 棄燕雀小志, 慕鴻鷺高舉, 將翱將翔, 所謂刻鷺尙類, 鷺者也, 肯與爾輩, 爭其鳩僞之功業, 慕其鷺兒之富貴?” (4~5면).

(細柳營)에 따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을 세우는 데 일조하였고, 그 공으로 양주군(楊州君)에 봉해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무관(武官) 출신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비둘기는 자신의 오류 대 선조들이 삼사(三司) 벼슬을 하였고, 전쟁에서도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정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면서 많은 공적을 세워[方鳩僞功] 집안이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비둘기는 문인(文人) 관료 출신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자신의 ‘조상’들에나 해당된다는 것이지, 자신의 현재 모습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즉 ‘조상’들이 세운 수많은 공업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겨우 가문의 명맥유지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피꼬리는 스스로 ‘중기이후로는 비록 세상에 드날릴 만한 공업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집안이 점차 쇠퇴 일로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자신은 선조가 하던 방직 일을 물려받은 덕택에 우림(羽林)이 되었다고 한다.¹⁴⁾ 자신이 ‘우림(羽林)’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입는 옷이 노란색이라는 데 착안한 것이다. 즉 ‘우림(羽林)’은 노란 피꼬리 모습을 형용하기 위해 쓰인 말이기도 하면서 피꼬리의 현재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는 그의 관직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둘기는 자신을 ‘청족(靑族)’이라고 칭하며 대대로 높은 벼슬만을 해왔던 고귀한 집안 출신임을 자랑한다. 그런데 비둘기는 자신의 조상에 대해 큰소리를 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즉 조상이 국가에 공을 세워 집안을 번성하게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4) 우림(羽林)은 진한(秦漢) 시대 천자의 숙위를 관장하던 관명으로, 조선에서도 설치 초기에는 단위 금군이었으며, 이후 금군청(禁軍廳) 용호영(龍虎營) 3위(衛)의 하나가 되었는데, 임금의 행렬 맨 앞에 서서 악기를 불면서 길을 정리하던 관리였다.

고, 정작 자신은 아무 것도 내세울 게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따오기의 빛깔은 희다. 흰색은 깨끗하고 고결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의 조상들이 스스로 ‘강호에 은거한 사람(江湖逸民)’이라 칭하면서 심신을 수양하며 덕을 기르려 노력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의 집안은 강호에 은거하여 살아가는, 도학자 집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감안했을 때, 그 자신은 향교나 서원 근처의 무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따오기가 문벌 자랑을 하기 전에 보여준 모습을 상기하면, 그 역시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오기는 피꼬리와 비둘기의 문벌 자랑을 들으면서도 딱히 할 말이 없었다.¹⁵⁾ 문벌 자랑에서 이미 불리한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그냥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아무 말도 안할 경우 틀림없이 업신여김을 당하리라 생각하고 ‘부득이’ 옷깃을 단정히 가다듬고는 천연덕스럽게 앉아서 이야기한다.¹⁶⁾ ‘부득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가 현재 아무 것도 내세울 게 없는 상황임에도 억지로라도 자랑 거리를 만들어 상대를 누르려 함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꼬리나 비둘기, 따오기는 모두 자기네 조상이 훌륭한 공업을 이루었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내세울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곧 작자는 이 셋을 통해 자신의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후광만을 믿고서 허장성세를 부리는 세태를 꼬집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이들이 각자 개인으로 설정된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곧 당대 특정한 신분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5) 鶯子聞鸞鳩之語, 無辭可稱, 時時乙字睡矣. (4면).

16) 鶯子心思曰, “若我不言, 鳳將困於羣鷄, 鶴見嘲於嬌鸚矣.” 不得已整羽衣, 之隴上, 天然坐語. (4면).

2) 따오기와 황새의 만남: ‘동질감’ 확인과 이에 기반한 결탁

문벌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 자존심만 상한 피꼬리와 비둘기, 따오기는 ‘소리’를 가지고 우열을 정하기로 한다. ‘소리’에 있어서는 셋 중에 피꼬리가 제일이요, 따오기가 최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에 우열이 금방 판가름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승부가 가려지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다 같이 황새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로 합의한다.

황새에 대한 언급은 따오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황새의 신분은 산림(山林)에 은거해 있는 도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산림에 은거해 왔고, 수양의 경지가 아주 높은 데 이르렀다. 아울러 음률에도 일가견이 있어 송사 역시 엉터리로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¹⁷⁾ 피꼬리와 비둘기가 따오기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한 것은 바로 인격이 높은 만큼 응당 이치에 맞게 판결을 내려 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들은 나중에 함께 가서 황새를 뵈기로 하고 헤어진다.

여기서 앞서 제안을 했던 따오기는 고민에 휩싸이게 된다. 자신의 소리가 가장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저런 생각 끝에 황새에게 미리 선물을 하여서 잘 봐주십사 귀뜸을 해두기로 한다. 그러고는 선물 몇 가지를 들고서 황새를 찾아간다.¹⁸⁾

황새는 뜻하지 않은 따오기의 방문에 기뻐하면서 맞이한다. 그리고 따오기가 선물을 드리자 더욱 기뻐한다.¹⁹⁾ 얼마나 고마웠던지, 황새는 따오

17) 鶯子曰: “此間有臥渴先生, 生於斯, 長於斯, 老於斯, 其魄乃青城山道士, 其伴即赤松子仙人, 年高髮白, 又能知音, 聽訟必猶人也, 亦將入訟於此先生前, 應不誤決矣. 且公等不先不後, 一齊往訴, 事所當然, 不亦可乎?” (8면).

18) “(전략) 納以鐵物, 則貌之所食, 非所嗜也, 納以虫翅, 則鷺之所食, 非所好也. 然則先生所嗜, 果何物也? 魚固所欲, 螺亦所欲, 二者不可得兼, 爲先生, 華蛇一接, 金鯉三首.” 朝負翼而去, 置之先生門下. (9~10면). ‘貌’는 ‘貌’의 오자인 듯하다.

19) 先生拂羽衣, 揩深目, 推窗而起, 欣然迎接曰, “山野迥隔, 魚鴈久阻, 恐焉枉臨, 實

기에게 “네 마음을 열어 나의 마음을 적셔주었다(啓乃心, 沃朕心)”고까지 칭찬해 마지않는다. 원래 이 말은 임금의 신하에게 마음속에 숨김이 없이 온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깨우치고 인도해 줄 것을 주문하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황새는 뜻밖에 찾아 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흡족하게 해 준 따오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로 바꿔 버렸다.

게다가 황새는 따오기와 이별할 적에 그의 정성을 고마워하면서 시까지 지어준다.²⁰⁾ 그리고 이어서 따오기도 시 한 편을 짓는다. 아래 두 인용시는 각각 황새, 따오기가 지은 시이다.

(라) 나의 손님이 오시니 또한 같은 포의[白衣]라
청아(清雅)한 위의(威儀) 배우지 않아도 인간 세상 등저 날아간다네.
산과 들이 길이 다르다 말하지 마오.
함께 날아 노닐다가 날 저물면 돌아온다네.²¹⁾

(마) 선생께서 옷자락을 가지런히 들어 올려 당상에 오르시니
이를 따라함은 진정한 공부라 날개짓을 배우고 익히네.
두 번 절하고 문을 나서니 뭇가를 얻은 듯 뿌듯하고
모르는 사이에 서쪽 봉우리로 석양이 넘어가도다.²²⁾

是料外.” 鷺子翼如再拜, 華蛇金鯉等物, 盛以松盤, 進之于先生前曰, “進見長者, 束手無策, 略以仰望, 物薄情厚, 領納伏望.” 先生欣然曰, “遠訪猶感, 此物又何? 多感多感.” 鷺子曰, “先生高臥青山, 想必飢渴, 可謂鷺在梁, 而鶴在林也, 小子如干野產, 今此奉進.” 先生曰, “鷺君以副我, 如飢如渴之願, 可謂‘啓乃心, 沃朕心’者也.” (10~11면).

20) 鷺子辭退, 先生曰, “此意良勤, 感歎何極?” 遂賦七言絕句, 行出松扉外, 清溪上餞別. (11면).

21) “我客戾之亦白衣 / 清儀不學背人飛 / 莫言山野殊其路 / 共與翱翔日夕歸.” (11면).

22) “先生堂上攝齊衣 / 從此眞工學習飛 / 再拜出門如有得 / 西峯不覺夕陽掃.” (11면).

따오기와 황새는 모두 몸집이 제법 큰 흰 새다. 이러한 공통점은 둘 사이에 강한 동질감이 형성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 시에서 보듯, 황새와 따오기 사이에 ‘우리는 뜻이 같은 한 편’이라는 강한 동질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새는 자신이 지은 시에서 자신과 따오기가 모두 빛깔이 희다는 데 근거하여 따오기에게 우리는 속세에 뜻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부류라며 동질감을 표한다. 이어서 세상과 등진 채 고상하게 살아가는 데 대한 자부심을 표한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곳이 서로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뜻을 같이하기에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둘 사이의 동질감을 확인한다.

한편 따오기는 자신이 지은 시에서 고결한 뜻을 지닌 황새를 깊이 사모하고 따르려는 마음을 강하게 드러낸다. 선생이 옷자락을 가지런히 하여 당상(堂上)에 오르는 모습을 따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에게는 진정한 가르침이며 공부하는 데서 이러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따오기는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른 채 선생과 함께 날개짓을 익히다 뿌듯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던 것이다.

사실 처음 황새를 방문할 때 가져간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을 의미했다. 물론 이 의도는 궁극적으로는 송사에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데 있었지만, 따오기 입장에서도 황새가 자신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리라고 확신할 수 없었던 터라,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방문을 한 것이다.

이는 이 작품에서 보인 황새의 모습과 앞의 『청성잡기』 성언편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 <황새결송>에서 보이는 황새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뒤의 두 작품은 황새가 따오기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 순전히 뇌물 때문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뇌물 이전에 황새와 따오기 사이의 강한 동질감이 이미 물밑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다. 다음 날 따오기가 ‘뇌물’을 들고 다시 찾아가서 잘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황새가 “그대와 나 사이에 대대로 지내 온 우의가 있거늘, 말로 부탁만 하면 어찌 팔시할 수 있겠는가?”²³⁾라 한 것도 따오기가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날 확인한 둘 사이의 강한 동질감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오기가 황새를 만나 서로의 동질감을 확인함으로써 이미 송사의 갈림길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같은 편인 것을 확인한 이상, 이제 따오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본격적인 송사에서 황새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확인 과정에서 황새가 내리는 판결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황새의 판결

: 신분적 ‘동질감’²⁴⁾ 교묘한 논리로 포장한 노골적 편 가르기

마침내 찌꼬리와 비둘기, 따오기는 함께 황새에게 찾아가서 송사를 요청한다. 그리고 차례로 한 곡조씩 노래를 부른 뒤 판결을 기다린다. 여기서도 찌꼬리와 비둘기의 소리는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화려하게 서술되고 있는 반면, 따오기의 소리는 별다른 미사여구가 동원되지 않았다.²⁵⁾

23) “君我間，世誼既有，言囑則何可恕視耶？”(12면).

24) 여기서 신분적 ‘동질감’은 따오기, 황새 모두 도학자 집안 출신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세속을 따르지 않고 고상한 삶을 살려는 동일한 가치 지향까지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5) 鶻兒率爾而對曰，“然，於是，欲誇聲之美，啼必於綠楊之間。”初以宜春苑和籥之曲，復以洛陽陌喚友之聲，綿綿焉，蠻蠻焉，如怨如訴，千聲萬曲，無不盡啼。鳩氏，於是焉，粧窈窕之態，乃以持嬋妍之色，飛坐花枝最高處，啼以喚雨之晴氤氳之聲，鳴以雄飛從雌繞林間之音，婷婷焉，姣姣焉，如離如合，千態萬巧，無不假鳴。鶯子初若啞啞，末乃強鳴，以體之大，其鳴也大，以頸之長，其聲長，聲之爲聲，野而直，

따오기 소리의 초점은 꾸미지 않은 담백한 목소리라는 점에 있다. 이는 앞서 살폈던 황새의 가치 지향점을 상기한다면, 황새의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각자의 소리가 다 끝나자 황새는 이에 대해 평을 한다. 피꼬리에게는 “청아(清雅)하기는 하다면 구슬프니 하등(下等)이다.”라고 하고, 비둘기에게는 “그윽하기는 하다면 음란하니 하등(下等)이다.”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따오기에게는 “탁하기는 하다면 질박하니 상등(上等)이다.”라고 하여 그의 소리를 가장 훌륭하다고 판결을 내린다.²⁶⁾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황새의 모습과 판결 내용은 앞서 보았던 『청성잡기』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와 다를 게 없다. 만약 이 작품도 황새의 판결이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작품의 초점이 역시 ‘뇌물수수를 통한 부정한 판결’을 비판한 데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황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판결에 대해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댄으로써 자신의 판결에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 그 판결 내용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따오기가 우수하다는 황새의 판결이 결코 엉터리로만 읽히지 않는다.²⁷⁾ 오히려 황새는 세속의 화려함을 좇지 않는 자신의 가치 지향과 학식을 통해 교묘하게 논리화하는 데 성공한다.

그럼 황새의 판결을 계속 들어보자.

(바) “피꼬리 소리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만, 무식함을 면하지 못하여 근근이 성명을 기록하기에 족할 뿐이다. 비둘기 울음 또한 자신의 이름

鳴之爲鳴, 簡而不煩. (13~14면).

26) 三者之鳴, 各盡其聲, 進拜先生前, 以待其判, 先生顧謂罵曰, “爾聲雖清, 哀下.” 顧謂鳩曰, “爾聲雖幽, 淫下.” 回顧鶩曰, “爾聲雖濁, 質上.” (14면).

27) 초점은 좀 다르지만 정출헌도 이 작품에서 황새의 판결이 결코 엉터리로만 읽히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정출헌, 앞의 책, 154면).

을 스스로 말하지만, 아직 음률을 알지 못해 공교하려하나 도리어 졸렬해질 뿐이다. 따옥따옥[多玉多玉] 따오기 소리는 문(文)과 질(質)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소리이다. 공자와 같은 성인께서는 아름다운 옥으로 자처하시어 좋은 값에 팔기를 구하셨고, 군자와 같은 현인은 스스로 옥색에 비유하였으니 어찌 상등(上等)이 아니겠는가? 난 따오기를 따르려다.”²⁸⁾

피꼬리나 비둘기 울음에 대해 황새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할 뿐’이라고 한 것은 바로 피꼬리를 가리키는 글자[鶯]의 음이 ‘앵’이고, 그가 ‘앵앵’ 거리고 울기 때문이며, 비둘기를 가리키는 글자[鳩]의 음이 ‘구’이고, 그가 ‘구구’ 거리고 울기 때문이다. 곧 황새의 말은 피꼬리나 비둘기 모두 온갖 멋을 부리며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지만, 이는 모두 자기 이름을 부르는 데 지나지 않고, 음률도 맞지 않으니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황새는 따오기의 ‘따옥따옥’하는 울음소리에 대해 ‘문(文)’과 ‘질(質)’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칭찬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성인과 현인이 자신을 ‘옥(玉)’에다 비유한 전고를 끌어다가 설명을 한다. 즉 공자와 같은 성인이 스스로를 옥에다 비유한 것²⁹⁾이나, 현인들이 자신을 옥에다 비유하는 것은 옥돌을 썬 없이 갈아서 고운 옥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자신도 덕을 닦는 데 썬 없이 정진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펴 보일 준비를 해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황새가 평소 지향하고 있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황새가 따오기의 목소리를 높게 평가한 것은 바로 따오기의 ‘따옥따옥[多玉多玉]’하는 울음소리가 ‘나는 그런 덕(玉)이 많

28) “鶯聲，自言其名，未免無識，僅足以記姓名而已。鳩聲亦自言其名，未釋其音，欲巧反拙。鶯聲多玉多玉，文而質哉！是聲也，聖如孔子，以美玉自處，求善價而沽之，賢如君子，以玉色自況，豈非上乎？吾從鶯！”(14~15면).

29) 子貢曰，“有美玉於斯，韞匱而藏諸？求善賈而沽諸？”子曰，“沽之哉！沽之哉！我待賈者也。”『논어(論語)』 자한편(子罕篇).

소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데서 기인한다.

결국 이 판결문을 통해 황새는 따오기와의 신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깔고서 자신의 인품과 학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기편인 따오기를 감싸줌으로써 노골적인 편 가르기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고상한 학덕을 부정을 저지르는 데, 부정을 눈감아 주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단순히 ‘뇌물 수수를 통한 부정’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작품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2장에서 살핀 『청성잡기』 <따오기 노래자랑>과 변별되는 점이라 하겠는데,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4. <앵구목송와갈선생전> 작자의 시각과 현실 인식

1) 작자의 시각: 냉소적 시선을 통한 비판적 거리두기

작품 내에 작자가 별도로 서술자를 설정할 경우, 그 서술자의 시선을 따라서 등장인물이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등장인물에 대해 작자가 옹호 혹은 비판하고 있는 경우, 그 시각이 서술자의 서술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한다.

이 작품도 작자가 설정한 서술자의 눈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술자의 눈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서술자의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술자는 피꼬리 등 세 인물의 소리다툼이 판정나지 않고 있는 상황과³⁰⁾ 작품을 마무리 지으면서 작품에 대한 결론을 밝히는 부분에서만 직

30) 於此之時, 罵兒曰, ‘予善鳴’, 鳩氏曰, ‘予善鳴’, 鶯子曰, ‘予善鳴’, 誰知鳥之雌雄? ‘吾善鳴, 汝善鳴’, 今日出而爭, 日中不決, 不可私決, 決於一處可乎? (7~8면).

접적으로 개입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의 시선은 등장인물을 카메라로 비추듯 세밀하게 살피고 이를 있는 그대로 그려 내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 역시 매우 구체적이다. 그렇다면 작자는 등장인물을 과연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작자가 등장인물의 모습을 최대한 객관적,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등장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이는 바로 등장인물을 비추는 서술자의 시선이 매우 싸늘하기 때문이다. 곧 작자는 등장인물 모두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두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³¹⁾

그렇기에 작자가 설정한 서술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등장인물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거리라는 게 ‘객관적 제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누구도 편들어 주고 싶지 않은 작자의 심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그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거리를 유지한 채 바라보다 보니 ‘객관적인 모습’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자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비판적인 시선을 숨기는 데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객관적 서술 속에 숨어 있는 냉소적 태도는 이 작품의

31) 이러한 태도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서 두드러진다. 예컨대, 꺾꼬리, 비둘기, 따오기가 황새에게 판결을 받으러 갔을 때, 관청에 처음 와 보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따오기의 능청스러운 모습(是時, 鷺子踟東尾立, 故作村鷄登官廳之狀.(13면)), 꺾꼬리, 비둘기, 따오기가 각자 황새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전의 언행들(欲誇聲之美, 啼必於綠楊之間.(13면), 粧窈窕之態, 乃以持嬋妍之色, 飛坐花枝最高處.(13면), ‘鷺子初若啞啞, 末乃強鳴.’(14면))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는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된 시선은 매우 냉소적이다.

초점이 특정 등장인물에 대한 비판이 아닌, 등장인물 모두에 대한 비판에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그 비판의 강도는 다르긴 하지만 말이다.

2) 작자의 현실 인식

: 노골적 편 가르기와 물질적 이해다툼에 빠진 세상에 대한 절망

(사) 아아! 저 새들을 볼진대 오히려 인정(人情)쓰기를 구하거늘, 하물며 이 말세의 인심이야 어찌 탄식할 만 하리오?³²⁾

인용문 (사)는 작품의 말미에 서술자가 앞으로 나서서 작품 전체에 대한 총평을 하는 말이다. 서술자의 이 마지막 언술은 카메라로 대상을 다 비춰준 뒤 앵커가 정리해 주는 멘트와 같은 기능을 한다.

여기서 ‘용정(用情)’은 ‘인정(人情)을 쓰는 것’, 즉 보통 ‘뇌물을 쓰는 것’을 뜻하는 말로 본다. 그렇지만 3장에서 살핀 것처럼, 이 작품이 ‘뇌물 수수를 통한 부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쓰는 뇌물뿐만 아니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교술, 계책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네 명의 등장인물은 모두 당대의 대표적인 신분을 하나씩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본 등장인물들의 출신에 따른다면, 피꼬리는 무관, 비둘기는 문관, 따오기는 은거자, 황새는 도학자를 상징한다.

작자가 이 모두에 대해 강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대를 구성하고 있는, 중인층을 포함한 지배 계급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작자는 피꼬리와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분수를 망각한 채, 조상들의 후광만을 믿고서 허장성세를 부리는 행태를 비판한

32) 嗟乎! 相彼鳥矣, 猶求用情, 矧此末世之人心, 烏可歎也哉! (15면).

다. 그리고 따오기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비판한다. 이들의 행태를 통해 작자는 물질적 욕심과 이해관계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지배 계급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자는 황새의 행태를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피꼬리와 비둘기가 황새에게 가서 판결을 받자고 제안했을 때 흔쾌히 동의한 것은 바로 황새가 도학자, 즉 높은 학식과 고결한 인품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높은 식견과 고결한 인품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사회가 부패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고결한 뜻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이리라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지만 황새는 이러한 믿음을 저버렸다. 따오기가 미리 선물을 들고 찾아가 황새와 동질감을 확인한 뒤, 뇌물을 들고 가 자신이 승소하게 도와 줄 것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따오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황새는 각 새들을 지칭하는 글자, 새 울음소리, 경서에 등장하는 진고들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꽤 논리적인 해석을 가한 판결문을 내 놓는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판결이 마치 어디까지나 새들의 실상에 근거해서 내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결국 황새는 부정한 뇌물수수를 통해 뇌물 제공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을 자신의 학식을 이용하여 철저히 실상에 근거한 것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그리고 신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깔고서 자신의 인품과 학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기편을 감싸줌으로써 노골적인 편 가르기까지 자행하였다.

(아) 따오기가 다시 일어나 절하고 사례하며 말했다.

“선생의 풍모는 저 산처럼 높고 저 물처럼 장구할 것입니다.”³³⁾

황새의 판결에 대해 찌꼬리와 비둘기가 불복하고 가 버린 후, 홀로 남은 따오기는 선생께 승소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 따오기는 범중엄(范仲淹)의 <엄선생사당기(嚴先生祠堂記)> 중 한 구절인 “선생의 유풍(遺風)은 저 산처럼 높고 저 물처럼 장구하리로다(先生之風 山高水長).”를 끌어와서 선생께 사례한다. 원래 이 구절은 ‘고결한 인품의 향연이 길이 남을 것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오기는 이 말을 통해 황새의 고귀한 풍모에 대한 찬탄과 사모의 감정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학덕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부정을 눈감아 준 황새의 모습을 떠올릴 때, 따오기의 이 말은 엄청난 반어로 다가온다. 그리고 지식인에 대한 작자의 깊은 실망감과 절망감이 이 말 속에 배어있다.

즉 이 사람만큼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하는, 지식인인 도학자들마저 부정에 물들어 노골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부정을 눈감아 주는 모습! 작자는 황새를 통해서 이 시대 지식인마저 물질적 욕심과 부정부패에 물들어 허우적대는 세태, 지식인에게서도 더 이상의 방향적 지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그려내었던 것이다.

결국 작자는 찌꼬리, 비둘기, 따오기, 황새의 행태를 통해 이들 중 그 누구도 편을 들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당대 지배 계급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당대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었다. 그렇기에 서술자의 입을 통한 작자의 마지막 언술 속에는 물질적 이해다툼만 남아있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바꿀 수 없

33) 鶯子更起拜謝曰, “先生之風, 山高水長.” (15면).

다는 데 대한 작자의 절망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확인한 이상, 작자 역시 더 이상 어디에도 기댈 수 없으며, 어디로 가야할 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작자는 이에 대처할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한탄하고만 것이다.³⁴⁾

3) 작자의 현실 인식의 기반

: 욕망과 이해의 대립에 대한 냉철한 인식

(자) “저들이 실제로 잘 운다는 것은 전하는 기록들 중에 많이 섞여 나온 다. 그렇지만 내가 잘 운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어디에 잘 운다고 했던고? 단지 겉모습만 힐 뿐이요, 그 속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 그 누가 잘 운다고 칭하였던가? 왕자안(王子安)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도 ‘떨어지는 노을과 외로운 따오기 나란히 날아가네.’라고 했을 뿐이니, 따오기라는 녀석은 나는 데는 공교롭지만, 우는 데는 공교롭지 못하다.

아까 우족(羽族)들이 서로 모여서 자웅(雌雄)을 다툰 적에는 내 수결(修潔)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저들을 굴복시켰다만, (저들은 오히려 식히지 못

34) 본고를 발표했을 때, 작자의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풍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작가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사실 많은 수의 고전 소설들이 그렇듯, 이 작품도 작자 혹은 작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 혹 이 작품이 <광한루기>와 합철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가 중인층에 속하지 않겠느냐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역시 확신할 수 없다. 또 따오기가 끊임없이 꾀꼬리와 비둘기에게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따오기의 모습에 중인층들의 ‘자격지심’이 담겨져 있으며, 따오기가 뇌물을 바쳐 승소하는 것은 중인층들이 생존 방식을 보여준 것으로 보아 결국 이 작품은 중인 계층의 작자가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 역시 작품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 논의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 작자가 중인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등장인물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 시선, 전고의 활용 정도 등을 통해 볼 때 꽤 학식이 있는, 중인층을 포함한 중상위 계층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정해 볼 뿐이다.

한) 분(忿)이 없지는 않았기에 잘 우는 것을 가지고서 송사를 일으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네.

또 송사(訟事)를 들일 경우, 와갈선생(臥渴先生)이 비록 나이 들어 병들었다고는 하나 귀먹은 병은 들지 않았으니, 내 소리를 듣고 잘 우는지를 어찌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겠는가? 송사에 질 것이 분명하니 이 어찌면 좋을꼬? 아무런 단서 없이 송사를 들이면 일이 매우 영성하고, 공연히 스스로 물러나자니 또한 유약한 것 같네.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홍몽(鴻濛)도 이미 멀어졌으며 봉덕(鳳德)은 어찌 그리도 쇠하였는고? 세상일은 공정치 못하고 송사를 처리하는 데는 사사로움이 많으니 만약 뇌물을 바친다면 봉황을 헐뜯어 올빼미로 만들고 올빼미를 치켜세워 봉황을 만들며, 정직한 자가 도리어 굽은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도리어 선하게 될 것이다. 비록 훌륭한 일은 아니지만, 송사에서 지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내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저 와갈선생(臥渴先生)은 은거하여 산에서 나오지 않은 지 지금 거의 십 년이라 적막한 산림 속에서 굶주리고 기갈이 심할 것이다. 이 때 만약 선물이 있으면 굶주린 자는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달게 마실 것이니, 무엇으로 하면 좋을꼬? 딱딱한 물건을 드리면 이는 표범이 먹는 것이니 좋아하지 않을 것이요, 벌레 찌꺼기를 드리면 이는 딱따구리가 먹는 것이니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이 좋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꼬? 물고기도 진실로 원하는 것이요, 지렁이도 원하는 것이나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으니, 내 선생을 위해서 빛깔 좋은 뱀 한 접시와 금빛 나는 물고기 뼈다귀 세 마리를 가져다 드려야겠다.”³⁵⁾

35) “彼實善鳴，雜出傳記者亦多，而顧吾善鳴，有何善鳴？徒其白於外而已，其中未必有也，人孰稱善鳴乎？王子安滕王閣序只云，‘落霞與孤鶩齊飛。’蓋鶩之爲物，工於飛而不工於鳴也。向者，羽族相會，爭雄之時，以我修潔之狀，雖伏彼禽，不無忿，故稱以善鳴，至於起訟之境。且將入訟，則臥渴先生雖病於老，不病於聾，聞我之聲，豈不明辨其善不善之鳴乎？落訟必矣，此將奈何？無端入訟，事甚疎闊，公然自退，亦似懦弱。昧味思之，鴻濛已遠，鳳德何衰？世事不公，聽訟多私，如有納賂者，毀鳳凰爲鷓鴣，譽鷓鴣爲鳳凰，直者反曲，惡者反善，雖非長者之事，惟愈於落

인용문 (자)는 찌꼬리, 비둘기, 따오기가 송사를 벌이기로 하고 헤어진 뒤, 따오기가 혼자 생각하는 장면이다. 이 작품의 말미에 나타난, 물질적 이해 다툼만이 남아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작자의 깊은 절망과 탄식은 작자가 처해 있는 세상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해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꺾기 위해서는 정도(正道)도 쉽게 어그러뜨릴 수 있음을 냉철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위 인용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앞서 ‘문벌자랑’에서 보았듯, 따오기는 자신이 고상한 도학자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상대방의 기세를 눌렀다. 그렇지만 이는 새의 본질적인 면을 가지고 대결한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허풍을 더 잘 침으로써 상대를 누른 것이기에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찌꼬리와 비둘기가 승복하지 못하고, ‘소리’로써 재대결을 벌이자고 한 것이다. 따오기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님은 따오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따오기가 억지를 쓰면서까지 찌꼬리와 비둘기를 누른 것은 바로 실절은 그렇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뒤쳐져서는 안 되겠다는 욕망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망은 이후 ‘소리 대결’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새의 본질인 ‘소리’에 있어 셋 중에서 따오기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결국 송사를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다.³⁶⁾ 그리고 송사에 이기기 위해 뇌물을 바치기로

訟. 我亦有一道理, 惟彼臥渴先生, 臥不出山, 而今幾十年, 寥寂山林, 如飢如渴. 方是時, 苟有膳物, 飢者易爲食, 渴者易爲飲, 何以則可? 納以鐵物, 則貌之所食, 非所嗜也, 納以虫翅, 則鷺之所食, 非所好也. 然則先生所嗜, 果何物也? 魚固所欲, 螺亦所欲, 二者不可得兼, 爲先生, 華蛇一接, 金鯉三首.” (8~10면). ‘貌’는 ‘貌’의 오자인 듯하다.

결정한 것이다.

그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따오기의 현실 인식은 바로 작자의 현실 인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곧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고, 이해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부정확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인식, 뇌물을 통해 승소하는 것이 비록 옳지는 않지만, 송사(訟事)에서 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인식, 세상의 올바른 도는 이미 쇠하였다는 현실 인식, 그리고 세상사는 공정하지 않고 송사는 뇌물로 인해 시비판단이 흐려졌으며, 또 흐려지기 마련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작자의 현실 인식 하에서 따오기의 뇌물 공여는 한 연구자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질 것이 자명한 송사에서 승소를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³⁷⁾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작자는 작중 인물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물질적 이해다툼으로 가득 찬 현 세태를 냉정한 시선으로 꼬집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실에 대한 이러한 냉철한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청성잡기』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에 나타난 풍자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앵구목송와갈선생전>에 와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이 새롭게 드러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36) 이 점은 따오기가 황새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昨者, 適參鷓鴣之會, 彼二子具曰, ‘予善鳴’ 顧念小子均是羽族, 嘿嘿同坐, 還似無瞻, 故自稱以善鳴, 則彼皆嘲笑, 自然爭詰, 至於相訟之境, 先生前以決訟次爲約,” (12면).

37) 윤승준, 앞의 책, 201면.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청성잡기』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는 ‘부정한 뇌물 수수를 통한 부당한 판결’을 비판하는 데 작품의 초점이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작중 인물 모두를 풍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앵구목송와갈선생전>을 살펴본 결과, 이 작품 역시 기본적인 구도는 『청성잡기』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 이야기와 같았다. 그렇지만 여기에 ‘문벌 자랑’ 이야기를 더 첨가하여 각 등장인물들을 당대 중인층을 포함한, 지배계급을 대표하는 인물로 변형시켰고, 이들이 보여주는 허장성세를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작자는 꾀꼬리와 비둘기의 행태를 통해 작자는 물질적 욕심과 이해관계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지배계급의 모습을 꼬집고 있으며, 당대 지배 계급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작자는 지식인을 상징하는 황새의 행태를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었다. 즉 황새는 부정한 뇌물수수를 통해 뇌물 제공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을 자신의 학식을 이용하여 철저히 실상에 근거한 것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그리고 신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깔고서 자신의 인품과 학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기편을 감싸줌으로써 노골적인 편 가르기까지 행하였다.

작자는 황새의 행태를 통해 지식인인 도학자들마저 부정에 몰들어 노골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물질적 욕심과 부정부패에 몰들어 허우적대는 세태, 지식인에게서도 더 이상의 방향적 지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그려 내었다. 이 점은 이 작품의 초점이 단순히 ‘뇌물수수를 통한 부정’에 대한 비판을 넘어섰음을 보여준 것이며, 『청성잡기』 소재 <따오기 노래자랑>과 변별되는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작자는 이 작품을 통해 정신적 가치는 퇴색한 채 노골적 편들기와 물질적 이해다툼만이 남아있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대안도 제시할 수도 없다는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욕망과 이해가 철저하게 대립하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본 <앵구목송와갈선생전(鶯鳩鶯訟臥渴先生傳)>.
성대중(成大中), 『청성잡기(靑城雜記)』 권1, 성인편(醒言篇),
민찬, 『조선후기 우화소설연구』, 태학사, 1995, 1~342면.
소인호, 「두껍전 이본군(異本群)의 양상과 사회적 의미」,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1, 1~87면.
윤승준, 『동물우언의 전통과 우화소설』, 월인, 1999, 198~206면, 1~313면.
정출현, 『조선 후기 우화소설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1~385면.

ABSTRACT

The Satire Patterns and Writer's Consciousness in
Aenggumoksongwagalseonsaengjeon

Jang, Ye-Jun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satire patterns of *A Song Contest among the Ibis* in *Cheongseongjapgi*, how they were changed in *Aenggumoksongwagalseonsaengjeon*, and what new meanings were revealed in the work.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study, *A Song Contest among the Ibis* in *Cheongseongjapgi* focuses on the criticism of "unjust rulings by dishonest bribery." In the work, every one of the characters is satirized.

Aenggumoksongwagalseonsaengjeon follows the basic structure of *A Song Contest among the Ibis* in *Cheongseongjapgi* and further adds a story of "boasting noble families," changing the characters into the individuals representing the ruling class of the times including the middle class between the nobility and common people. Depicting their conspiracy based on bluff and "homogeneity," the author sneers at the reality that no one from the ruling class is qualified to lead the society in the right direction.

The author also reveals the reality that no one deserves the expectation that he will lead the society that's full of conflicts of material interest among the members to the right path. Under the pressure of the reality that only conflicts of material interest remain with the spiritual values deteriorated, the intellectuals have lost their sense of direction. Their despair is also well described in the work based on the author's cool-headed perception of the reality where people are confronted with each other for their own desire and interest.

Key Words *Aenggumoksongwagalseonsaengjeon*, *Cheongseongjaggi*, allegory, *Hwangsaebyeolsong*, fable, satire, homogeneity, bribe

논문투고일 : 2007. 5. 19

심사완료일 : 2007. 5. 30

게재확정일 : 2007. 6. 8